

기고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박카스 한병

서울일보 | 승인 2025.06.12 09:06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지사장
이순보

6월은 한 해 중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달이다. 다가올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하고 감자, 마늘 등의 제철 작물을 수확하느라 농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이다.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수확이 한창인 만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농촌은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어르신들이 다수이다.

지금처럼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져 농지를 정리하거나 은퇴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농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최소 3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의무가 있다.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이들에게 3년간의 자경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조차 받을 수 없고, 설령 농지를 팔려 해도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농업에서 은퇴를 희망하지만, 소유한 농지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공사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 공사 등에게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확대하여 개편한 사업이다.

약정체결일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포함)를 청년 농업인, 공사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비 등으로 농지를 급하게 매도하려면 정상적인 농지 가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매도손실금액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은퇴이양 직불금(1ha당 월 50만 원, 최대 월 200만원, 최장 10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호응이 크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32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직불사업에 참여해 6천 6백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26ha의 농지가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되었다. 더불어 충청남도에서는 은퇴이양 농지매도 대금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충남형은퇴직불 사업을 추진해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은퇴 후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당장 매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은퇴직불금을 모두 받는 시점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나 일시 지급 방식 등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선택의 폭 또한 넓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로 등이 굽어 앉은 채로 기다시피 지사를 방문하신 할머니가 생각난다. 하루에 4번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땅을 꼭 팔아야 한다며 하소연하셨다. 사정을 들어 보니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을 마련할 곳이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논은 급하게 아무도 사주지 않았다. 마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홍보하는 제도를 보시고 마지막 희망으로 오셨다고 한다. 며칠 후 다시 지사를 방문한 할머니의 등짐에는 따뜻한 박카스 몇 병이 들어 있었고 고마운 농어촌공사를 위해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시며 감사를 표하셨다.

이럴 때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업인도 직장인과 같이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은퇴 농업인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일보 silbo1@daum.net